

# “다채로운 미디어를 배우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영광홍농중학교에서 ‘2019 청소년미디어캠프’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영광홍농중학교에서 ‘2019 청소년미디어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Colorful Media·다채로운 미디어를 배우자’를 주제로 미디어 바로 알기 교육, 뉴미디어 체험, 청소년 콘텐츠 제작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째 날 오전 학교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공동 선서를 통해 안전한 캠프 활동을 약속했다. 또한 가짜뉴스 관련 영상과 교재를 통해 미디어(매체)를 바로 알기 위한 기본기를 다진 후 퀴즈를 풀며 복습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조별 영상 제작 활동에 나섰다.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청소년 드라마, 뮤직 드라마, 미니 다큐멘터리, 뉴스 등 다양한 장르와 주제가 선정됐다. 학교, 가짜뉴스 해수욕장 등 학교 주변이 모두 촬영장이자 세트장으로 변신했고 학생들은 미디어강사의 멘토링을 통해 안전하게 촬영과 편집을 마쳤다.

둘째 날에는 미디어 기술을 경험할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한 뉴미디어 체험이 운영됐다. VR기기를 직접 조립하며 가상 현실의 원리를 이해하는 VR 체험과 드론 시뮬레이터 체험, 드론 비행 체험 등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을 경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캠프의 마지막은 시사회로 장식됐다. 참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지난 25일부터 이틀 간 ‘2019 청소년미디어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미디어강사의 멘토링 아래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제공〉

여 학생들은 작품을 시청하고 제작 에피소드와 소감을 이야기하며 창작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또 완성된 청소년 작품들은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에 반영되며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박서영(영광홍농중3년)양은 “미디어캠프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다”며 “혼자서는 하기 힘든 방송

제작을 미디어 선생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완성할 수 있어 기쁘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미디어캠프’는 한빛원자력본부 주최, 영광홍농중학교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주관으로 청소년의 미디어 방송 분야 진로탐색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6년째 운영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PC 보안, 이제 걱정 마세요

목포 중소기업, 화면 잠금 보안 기술 개발

화면 잠금 기능을 통한 컴퓨터 보안 기술이 목포의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주)GH 솔루션(목포)은 지난 31일 세이프 매니저 v7.0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 매니저는 최첨단 IC 카드로 별도의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 없이 카드를 빼면 화면이 잠기고 켜지면 열리는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보안 솔루션이다.

사용자의 카드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PC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성과와 기능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1등급을 인정받은 프로그램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GH 솔루션 관계자는 “신속한 엠티 방지 기능이 탑재돼 보안이 있어야 하는 컴퓨터 작업 도중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리더기에서 카드만 빼면 즉시 화면이 잠기기 때문에 절대 엠티를 할 수 없는 탁월한 성능을 지녔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교육기관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학교나 관공서 등 보안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면 적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애니메이션·웹툰 제작 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개 작품 협약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역 애니메이션·웹툰 10개 작품을 제작 지원한다.

진흥원은 지난 30일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스튜디오 파일럿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 작품에 대한 제작지원 협약을 맺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코딱지 코지’ ‘타이니 어드벤처’ ‘버블랩’ ‘편더 라이트’ 등 애니메이션 4개, ‘줄라이 블루’ ‘충신: 더 비기닝’ ‘에그머니즈’ ‘스님식 요괴요리’ ‘소개팅 다음날 소개팅녀가 커졌다!’ ‘화가의 고양이 집사’ 등 웹툰 6개가 선정됐다.

웹툰 ‘충신: 더 비기닝’은 광주 금남로 이름의 유래로 알려진 금남공 정충신 장군(1587~1636)의 이야기를 다뤘고, 애니메이션 ‘편더 라이트’의 경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받은 3명이 제작에 참여한다.

진흥원은 애니메이션 부문 1억원, 웹툰 5000만원 등 총 7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창업공간,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스페이스X, 드래곤캡슐 발사 성공



처음으로 세 번째 재활용되는 드래곤캡슐을 탑재한 미국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이 최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비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드래곤캡슐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 요원들이 사용할 물품과 실험 기자재 등 화물 2.4t이 적재됐다.

/연합뉴스

## 국민 10명 중 4명 “랜섬웨어 잘 몰라요”

〈악성 프로그램〉

온라인 보안관리 실태 조사 14% “별도 보안관리 안 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랜섬웨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0대 이상 남녀 1만 68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대국민 보안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랜섬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3.5%에 달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워너크라이(WannaCry) 등 대규모 랜섬웨어 감염 사태로 랜섬웨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2017년 ‘랜

섬웨어를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0.8%였던 것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이다. 2년 새 랜섬웨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랜섬웨어는 사용자 컴퓨터에 침입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보안관리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별도 관리 안 함’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약 14%에 달했다.

응답자 중 회사원 90.7%는 이메일 확인과 업무지시 등 알림, 오피스 문서 작성 등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기기를 사용한다고 답해 개인 기기에 노출된 보안 위협이 기업의 보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IT 기기 보유 현황 설문에는 스마트폰이 99%를 웃돌아 가장 높았고, 노트북과 랩톱, 데스크톱,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순이었다.

IT 기기의 주 이용 목적(중복응답)은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감상이 64% 이상이었으며, 회사원 중에서는 49.4%가 ‘업무 및 작업 지속’이라고 답했다.

이스트시큐리티 관계자는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랜섬웨어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과 업무환경에서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중요자료 백업 등 지속적인 보안 관리에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 올해 미국 최고 화제 드라마 ‘체르노빌’

왓차플레이 통해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 HBO에서 방송돼 올해 최고 화제작으로 꼽힌 드라마 ‘체르노빌’을 왓차플레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만나게 됐다.

월정액 VOD(주문형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왓차플레이는 HBO와 ‘체르노빌’의 국내 서비스 계약을 체결, 8월

중 단독 공개할 예정이다.

‘체르노빌’은 1986년 4월 일어난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를 다룬 5부작 드라마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HBO에서 방영해 현지는 물론 국내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도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작품은 철저한 역사 고증과 신선한 스토리, 빠른 전개와 몰입감 넘치는 연출로 크게 호평받았다.

‘체르노빌’은 HBO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고’와 ‘HBO나우’ 시청률 집계 결과 기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왕좌의 게임’(46%)을 제치고 신기록(52%)을 세우기도 했다. HBO 드라마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시청률이 50%를 넘긴 사례다.

/연합뉴스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8월14일까지)

문의. 010-6834-7400